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참고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7. 3. 16.(목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유법민 과장 (044-203-4330)	담 당 자	이헌두 사무관(044-203-5383) 김태우 사무관(044-203-5363)

□에너지신산업 팀코리아□구성, 패키지형 해외진출 추진

- ESS 특례요금제, 태양광+ESS 신재생공급인증서 적용기한도 연장 -

□ 산업통상자원부는 3. 16.(목)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**「에너지신산업 융합 얼라이언스 간담회」**를 가졌다.

○ 간담회에 산업계, 금융계, 공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고, **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와 수출산업화 방안**을 논의했다.

< 간담회 개요 >

- 일시/장소: 2017. 3. 16.(목) 07:30～08:50, 플라자호텔
- 참석: 산업부 장관, 엘에스(LS)산전, 한화큐셀코리아, 엘지(LG)화학, 삼성에스디아이(SDI)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신한은행, 삼성카드, 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, 한국전력공사 등

1. 팀 코리아(Team Korea) 구성·운영

□ 간담회 참석자는 국제적인 경쟁이 치열한 해외시장에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의 **개별 진출이 아닌** 상호간 이해와 협력을 통해 **팀으로 움직여야 한다**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.

○ 이에 해외진출 경험이 풍부한 **공기업을 중심**으로 기술력이 있는 **민간기업**과 자금력을 갖춘 **금융기관**이 **『팀 코리아』를 구성**키로 의견을 모았다.

※ (사례) 일본 홋카이도 '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(28MW)' : 한전이 일본 신재생 전문기업과 사업을 발굴하고, LS산전이 발전소 건설과 운전·보수를 맡으며, 산업은행, 우리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이 파이낸싱을 통해 해외진출('16. 4.~)

- **다음 주중으로 '공동 실무작업반'을 구성**해 기업별 추진 사업과 금융기관 조달자금(파이낸싱) 직접 연결 등 **『팀 코리아』*를 본격 운영**

* (구성) 에너지공기업, 수출입은행, 무역보험공사, 신재생/에너지저장장치(ESS)/지능형검침시스템(AMI) 등 제조업체 참여

- (**한전**) 국제적 관계망을 활용해 적극적인 해외사업 발굴 등 민간 기업과의 **공동 사업을 선도**하고, 기존 석탄화력발전 등 기저발전의 해외수출 시 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등 연관된 신산업이 함께 진출하는데 역량 집중

- (**민간기업**) **지속적인 기술개발**을 통해 제품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, **혁신적인 본보기 사업과 해외 사업 발굴**도 주력

- (**금융기관**) 사업개발 단계부터 금융기관이 참여하여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에 적합한 **금융서비스**(예: 개도국 진출시 보증 확대)를 만들고, **프로젝트 파이낸싱**(PF)도 적극 추진

○ 특히, 국내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**공적개발원조(ODA) 등 국제원조**와 **세계은행(WB), 아시아개발은행(ADB), 아프리카개발은행(AFDB) 등 국제금융기구**와도 전략적인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.

2. 국내 보급 확산

□ 아울러, 참석자들은 『팀 코리아』 같은 협업정신이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, 정부는 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치(ESS), 에너지관리시스템(EMS) 등이 **패키지로 투자**될 때 **규제완화 등 애로사항 해결**과 함께 **보조금, 요금제, 세제혜택 등의 지원**을 강화하기로 했다.

① 우선, 현재 ’19년까지 한시 적용 중인 ’에너지저장장치(ESS) 특례요금제‘는 에너지저장장치 투자·설치에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 1년 연장 필요하다는 기업 건의에 대해

- 산업부는 에너지저장장치 특례요금제는 **관련 절차를 거쳐 현행 ’19년까지인 적용기한을 ’20년까지 연장 추진**하기로 함.

② 또한, 에너지저장장치(ESS) 보급 확대를 위해 태양광+에너지저장장치(ESS)에 대한 신재생공급인증서(REC) 5.0 적용기한도 현재 ’17년에서 연장할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해서도

-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통해 **태양광+**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공급인증서(**ESS REC) 가중치 5.0 적용기한 1년 연장을 추진**하기로 함.

□ 주 장관은 “정부는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업계의 수출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결하겠다.” 라고 말하고,

○ 『팀 코리아』를 중심으로 신재생, 에너지저장장이(ESS) 등 단품 위주의 수출이 아닌 **패키지형 수출이 확대**될 수 있도록 업계와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.“라고 강조했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이헌두 사무관(044-203-5383), 김태우 사무관(5363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**에너지신산업 융합얼라이언스 간담회 개요**

□ 행사개요

○ 목적 : 에너지신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및 수출산업화 방안 논의

○ 일시 : ’17. 3. 16(목) 07:30~08:50

○ 장소 : 서울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 서브룸1(B2)

○ 참석 : 산업부 장관, 업계, 금융계, 공기업 등 총 15명

구 분	소 속	직 위	성 명
정 부	산업통상자원부	장 관	주 형 환
		실 장	김 학 도
		국 장	장 영 진
		국 장	김 용 래
		국 장	주 영 준
업 계	LS산전	회 장	구 자 균
	LG화학	사 장	이 웅 범
	삼성SDI	부사장	정 세 웅
	한화큐셀코리아	대 표	차 문 환
금융계	무역보험공사	사 장	문 재 도
	수출입은행	부행장	홍 영 표
	신한은행	부행장	최 병 화
	삼성카드	사 장	원 기 찬
	에너지인프라자산운용	대 표	정 상 기
공기업	한국전력공사	사 장	조 환 익

□ 세부 진행순서

시 간	행 사 내 용	비 고
07:30~07:35 (05′)	▪ **모두말씀**	산업부 장관
07:35~07:40 (05′)	▪ 에너지신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방안	한국전력
07:40~08:45 (65′)	▪ **자유토론**	참석자 전원
08:45~08:50 (05′)	▪ **마무리말씀**	산업부 장관